

1 한·중 기업들, 북미 시장에 FAST 서비스 출시

한국의 미디어 기업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xt Entertainment World, NEW)의 자회사 뉴아이디(NEW ID)와 중국의 TV제조업체 TCL이 각각 북미 지역에서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FAST)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

자료 StreamTV Insider, TCL launches FAST service on TVs in North America, 2023.8.24.
Variety, 'BINGE Korea' FAST Platform Launches in the U.S., 2023.8.15.

- **뉴아이디는 한국 콘텐츠 전용 FAST 플랫폼인 빈지코리아(BINGE Korea)를 미국에서 출시하고 초기 36개 채널로 서비스를 시작**
 -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와 KOBACO에 따르면, 2022년 미국 스트리머의 43%는 한국 콘텐츠를 시청했는데, 이는 미국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시청 비율로 영국(29%), 일본(25%), 중국(16%), 멕시코(13%) 콘텐츠 등이 그 뒤를 이음
 - 미국과 캐나다에서 한국 콘텐츠의 시청 시간이 월 550만 시간에 달하는 등 이미 상당한 K-콘텐츠 수요가 존재하는 가운데, 뉴아이디는 빈지코리아의 출시가 2023년 기준 40억~6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미국의 FAST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현재 빈지코리아는 삼성·LG 스마트TV, 아마존 파이어TV(Fire TV)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접속 가능하며, 향후에는 로쿠(Roku), iOS, 안드로이드TV(Android TV)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더 많은 미국 시청자들에게 도달하게 될 전망
- **한편 미국에서 4년 연속 판매량이 가장 높은 TV 브랜드 2위로 선정된 중국의 TCL도 북미 지역에서 FAS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TCLtv플러스(TCLtv+)를 출시**
 - TCLtv플러스는 200개 이상의 FAST 채널과 더불어 스크립스 미디어(Scripps Media), 프리멘틀(Fremantle), NBC유니버설(NBCUniversal) 등 여러 콘텐츠제작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1,500개 이상의 주문형(on-demand) 영화 및 TV 시리즈를 제공
 - TCLtv플러스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구글TV(Google TV)를 실행하는 TCL TV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4분기에는 로쿠TV와 파이어TV 플랫폼으로도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
 - TCL은 TCLtv플러스를 출시함으로써 삼성('Samsung TV Plus'), 비지오('WatchFree+') 등 FAST 서비스를 출시한 TV 제조업체 대열에 합류